

20230220 권찰회 (설교: 박관희 목사)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25 응답 (마태복음 16:16)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오늘 이제 상반기 우리 권찰 또 교구 사역이 시작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우리 권찰, 부권찰, 또 우리 교구에 귀한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교구 한 분, 한 분을 잘 보살피고, 또 기도하고, 또 심방도 하시고 너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이제 또 우리 권찰 분들이 이제 구역예배로 또 인도 받으면서 올 한 해 주셨던 그 모든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그 일에 심부를 하시는 우리 권찰 분들, 또 부권찰 분들, 또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 아마 많은 은혜 가운데 어제 주신 우리 강단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의 그 축복이 풍성히 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원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참 감사하죠.

▶ 오늘 찬양도 드렸듯이 사실은 별레 같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참 치욕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이 절대적 은혜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25 응답입니다.

서론> 요19:30(다 이루었다)

▶ 서론에 보시면요, 어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 요한복음19:30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것이죠. 모자람이 없이 완전히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모든 상태, 사단에서 해방, 저주, 재앙에서 해방,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주셨죠.

1. 축복

▶ 그래서 우리 어제 강단말씀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죠.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1)지혜 - 성령인도, 지식 - 세상X(영적), 보화 - 사람, 제자, 전도, 선교
▶ 골로새서2:6-7절 말씀에 그대로 있죠. 그 안에 지혜가 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이 뭐냐? 성령인도죠. 어떤 분이 참 지혜 있다 라고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른 것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과 같은 거죠.

▶ 그리고 그 안에 지식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세상 지식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 거기다가 그 안에 너무 중요한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말씀 주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화는 뭘니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제자죠. 그리고 어제 또 중요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다 라고 말씀 주셨죠.

▶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신학교 사역을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금요일 날에도 주셨고, 또 주일 어제 또 말씀 주시면서 저도, 아마 여러분도 느꼈을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1만 2천 개가 넘는 그 섬, 그리고 사실은 이 국가가 이슬람,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전부 그런 국가입니다.

▶ 그런데 40명 넘는 지금 현지인 신학생들이 생을 걸고 지금 전도운동 속에 있고, 지금 신학교에서 너무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다,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모화죠. 아마 우리 담임목사님 가슴에 사람과 제자와 전도와 선교가 많이 담기신 것을 제가 말씀 들으면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

분들도 그것 많이 느꼈을 겁니다.

▶ 그래서 우리가 이 보화가 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 그냥 또 사람이 아니라 제자, 그리고 전도, 선교의 응답을 누린 거죠.

2)가치 - 전도, 선교

▶ 이걸 알고 축복이 뭘니까?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바로의 왕자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서 주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고 했잖아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전도와 선교한다는, 그리고 출애굽을 한다는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가치,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 저는 이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가는 모든 사역과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귀한 권찰 분들, 부권찰 분들이 가는 모든 오늘 현장 사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에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거죠.

2. 눈에 보이지 않는 것

▶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뭘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 영적 세계

▶ 그게 뭐냐?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최고의 과학적인 지식이 될 수 있고, 또 학문이 될 수 있고, 또 정치나 권력이나 또 물질, 돈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는 영적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삼서1:2절에도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잘 되어야 영혼이 잘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내 육신도 잘 될 수밖에 없음을, 영적인 축복을 누리야 육신적인 축복도 누린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가 정확한 겁니다.

* 뇌, 영혼, 보좌

▶ 그리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뇌에 각인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에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는 이걸 다 이루었다는 거죠.

* 그림(행2:17-18)

▶ 그리고 뭘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는 그림이 있어요. CVDIP도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나?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 안에 분석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곳에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이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사도행전2:17-18절에도 환상을, 그리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다 라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확실한 그림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후대를 어떻게 키우고, 후대를 어떻게 살리고, 내가 있는 이 교구와 구역과 구역 식구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이나? 그림이 있어야 돼요.

▶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 들어가도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운동 할거냐?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어떻게 전도운동 하지? 어떻게 복음운동 할거야? 그림이 있

여야 합니다. 이게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 24, 25, 영원

▶ 그러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24 집중이 되어지고, 25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한 겁니다. 24, 25, 영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 나갈 것이다.

* 시대

▶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보좌죠. 왜 그러냐? 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보좌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사람이죠.

▶ 어제 우리 목사님이 또 치유국에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학생들도 대마를 하고, 이 약물 중독에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구가요, 사실은 굉장히 이 마약 중독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가 굉장히 심각한 마약 중독의 도시가 바로 대구예요. 우리나라가 전체가 이제는 마약의 청정 국가가 아니고 이제는 이 약물과 마약과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에 아주 심각하게 온 거예요. 시대 문제를 본 거죠.

▶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렘넌트들이 와서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려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대통령이 된다? 또 굉장한 돈을 많이 번다? 또 어떤 권력을 많이 가진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살려나갈 우리 후대들이 커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정치인이 되고,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권찰, 또 부권찰로 이제 교구사역, 구역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비밀 - 5가지

▶ 이게요, 비밀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죠. 다섯 가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1. 영세 전 그리스도 - 과거, 재앙

▶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니까? 영세 전 그리스도, 이 영세 전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의 모든 과거, 재앙을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발판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과거, 재앙을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끝난 겁니다.

1)성삼위(창1:26-27)

▶ 그래서 창세기1:26-27절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우리가, 이게 뭐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세 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창조의 역사 속에 함께 하였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예요, 영세 전에.

2)멸망(창1:2)

▶ 그런데 이유가 뭐니까? 영세 전에 이미 멸망 상태가 온 거죠. 창세기1: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 허무함이 있다 했습니다. 멸망 상태예요.

3)해답(창1:3)

▶ 그런데 영세 전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죠. 이 멸망 상태에서 창세기1:3절을 주셨죠.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 했습니다. 해답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비밀이죠. 영세 전에.

4)준비(엡1:3)

▶ 그리고 이 구원은 이미 영세 전에 준비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1:3절에 있는 대로요, 영세 전에 이미 창세전에 준비된 구원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세 전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과거가 끝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거죠.

2. 성육신 그리스도 - 내주

▶ 거기다가 두 번째로 뭐니까? 이 영세 전 그리스도가 이제 성육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몸을 입

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되는 성령의 내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유가 뭐니까?

1)참 왕(요일3:8)

▶ 참 왕, 그냥 인간의 왕, 정치인이 아니예요. 진짜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모든 사단을 이기신 요한일서3:8절에 있는 대로 사단을 이기시고, 사단에게서 해방시킨 참 왕,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사단의 모든 일을 끝내셨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동네, 저주, 재앙 있는 동네,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해방시키는 그 이름, 그게 바로 참 왕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2)참 선지자(요14:6)

▶ 거기다가 참 선지자로 오셨죠. 요한복음14:6절에 있는 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 길, 진리, 생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셨다. 참 선지자의 축복을 주신 거죠.

3)참 제사장(막10:48)

▶ 그리고 뭐니까? 이제 참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거죠. 마가복음10:48절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신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 처음에 우리가 다락방 할 때 저는 1992년도에 다락방 메시지 처음 듣고 참 충격 받았던 게 이 세 가지 직분이었어요. 처음 들었던 단어였어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게 그리스도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것 사단, 마귀, 귀신의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충격도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단어들이었지 싶어요.

▶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충격과 또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죠. 저주, 재앙, 사단, 하나님 만나는 길, 이 그리스도, 이 얼마나 참 은혜고 감사한 내용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 사실은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고,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두 번째 대지 있었잖아요? 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도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조금 욕심이 날 때도 있잖아요? 뭔가 나도 복을 외에 뭔가 이 세상 것을 조금 결눈질 할 때도 있고,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예요.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부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그들도 불쌍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멋있고, 잘났고,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구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3. 부활하신 그리스도 - 응답

▶ 세 번째입니다. 비밀이 뭐니까? 그냥 성육신하시면 안 되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 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1)마28:16-20, 권세 - 함께

▶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 주셨죠. 마태복음28:16-20절에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끝 날 까지 여러분과 제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무서울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 이 사실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지금 아픈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을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천국ীয়, 죽어도 천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우리 교구마다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귀한 목사님들이 심방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늘 그 사람 명단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항상 함께하는, 세상 끝 날 까지 함께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조금 가난해도 돼요. 저희 교구도 물질이 너무 없는 분들 많습시다. 상황 들어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줄 수만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을 만큼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요.

▶ 그러나 우리는 그 물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막16:15-20, 보좌 - 함께

▶ 마가복음16:15-20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보좌에 앉으시니,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응답 25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이 이번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 오늘 새벽기도 때 저는 너무 많은 은혜 받았거든요. 어떤 은혜냐? 우리 여자 교역자분이 이렇게 강단에서 메시지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말씀 속에 응답 25라는 오늘 새벽에 또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한단니까요? 그리고 올 한 해는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게 응답 25가 올 거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올 거라는 걸 믿으면 반드시 옵니다. 그 얘기입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에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3)행1:8, 성령 - 함께

▶ 사도행전1:8절에는 어떻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라고 약속을 완전히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지금 조금 가난해도 돼요.

▶ 어제 우리 본문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칼로 죽임을 당하고, 툼으로 켜임 당하고, 유리방향 하고, 너무 힘들고, 춥고, 외롭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 우리가 비록 조금은 춥고,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다 할 지라도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그 성령 하나님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끝난 거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 237

▶ 네 번째 비밀이 됩니까?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재림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를, 미래를 살려나가는 그 응답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죠.

1)행1:11

▶ 사도행전1:11절 말씀대로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은 구역, 또 우리 주일학교 살려나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237, 5천 종족 살려 나가는 그 응답 가운데 있는 거죠.

2)마24:14

▶ 그리고 뭘니까? 마태복음24:14절 말씀에 있는 대로 천국 복음이 다 증거 되고 난 후에 오겠다 라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라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전도요, 미션이지요, 보좌죠.

3)마14:1-3

▶ 요한복음14:1-3절에 있는 대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거처를 예비해 놓고 다시 우리에게도 오시겠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죠.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조금 가난하고, 조금 아프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말기십시다. 내 고통, 내가 힘든 것 말기시면 됩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면 돼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살려나가는 거죠.

5.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 보좌

▶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뭘니까?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사실 그리스도,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끝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1)롬6:5

▶ 그래서 로마서6:5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부활해서 간다 했죠. 우리는 지옥과 관련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

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예요. 보좌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생명이 어떻게 될 거냐?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약 잡고 가면 됩니다. 응답 25인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이 임한다 했잖아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2)고린도전서 15장

▶ 고린도전서 15장에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3)빌3:20

▶ 빌립보서3:20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민권이 하늘 시민권이다. 이 응답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시민권 자체가 달라요.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다시 사실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구의 귀한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우리 교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권찰 분들, 부권찰 분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보좌입니다. 저는 어제 강단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보좌구나. 내가 좀 부족하고 언약하지만 나는 보좌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 전도, 선교구나. 다 이루셨다.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대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미래 결정

▶ 결론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결정되어 있냐?

* 램েন্ট - 금토일 시대

▶ 우리 램েন্ট들이 금토일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누리도록. 금토일 시대, 금요 전도학교 때 제가 찬양을 이렇게 잘 따라하지 못하지만 울동을 같이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 아니 어느 전도학교에 우리 교회 램েন্ট들이 많이 와가지고 울동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같이 찬양하고 이런 교회가 없잖아요? 전부 다 떠나는 시대인데. 토요일 날에는 또 우리 핵심 메시지를 같이 듣죠.

▶ 그리고 우리 자체 주일학교 부서에서 또 중요한 아워스 스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어떤 서밋에 대한 응답을 지금 누리나가고 있죠. 주일날에 예배에 집중하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램েন্ট들을 지금 서밋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미래 결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계속 하면서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 우리 교구 사역한다 해서 램েন্ট 사역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구 안에 있는 램েন্ট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이 금토일 시대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3040 캠프

▶ 그리고 우리 미래 결정, 지금 우리 교구에서는 3040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비 캠프 중에 있고, 또 본 캠프가 있고, 후속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안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3040 이 사람들 전부 다락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구 전도인분, 또 저도 그렇고요. 이제 3040 캠프 사역자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 계시는 권찰 분이 한 분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30대 중반이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인분이 가셔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다락방하기로 이제 열렸어요. 그 수성구 지역에, 그래서 이제 3040 캠프를 하면서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이게 우리 교구의 상반기 사역입니다.

▶ 아마 2대 교구 같은 경우는 계속 심방을 하면서 기도제목과 또 3040을 찾아 나가고 계시고, 우리 1교구, 3교구도 지금 전체 3040 명단을 두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또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237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상반기 전체 교구가 3040을 살려 나가는 그런 응답 가운데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주역이 바로 우리 권찰, 부권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실 때에 어제 우리 주신 강단 말씀,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응답 누리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며 하나님의 귀한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25 응답을 우리 교구의 귀한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우리 권찰, 부권찰 분들이 그리스도 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교회 자료팀

국장 : 강영호 장로 / 팀장 : 조재호 집사(choddq@hanmail.net)

유튜브 채널(대구하나교회) : <https://www.youtube.com/ihanachurch>

다음 카페 : <http://cafe.daum.net/hanarutc>

교회 홈페이지 : <http://www.ihanachurch.com/>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35 (우. 42748)